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헤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사전 뿐입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내지 못했던 나는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허드렛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가을에 입던 훤 잠바를 한겨울에까지 입어야 하는 나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가다가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신 엄마를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 가며 밤세워 공부했습니다. 가없는 나의 엄마를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습니다. 종종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운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 드렸습니다.

"엄마...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동안 나를 꼬옥 안아 주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있는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나를 태운 뒤,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 주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던 형의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 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이 북받으셨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한채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셨습니다.

지금 형은 집안 일을 도우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한시간씩 큰소리로 더듬더듬 책을 읽어 가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채.

◀남몰래 밤엔 어머니의 첫별을▶ 어느 중학교 사회시험
【문제】 SALT란 무엇인가? 정답은) 전략 무기 제한 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학생 A군은 자신있게 소금(salt)이라고 적었다. 지나치던 선생님이 힐끗 보신 후, "야! 이놈아! 대문자다. 제대로 좀 적어봐." 그러자 우리의 A학생,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 있게 적기를..... 【답】 굵은 소금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4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1월 17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거룩한 감사



영화 <벤허>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벤허는 두 번씩이나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이상스럽게도 구출이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죄수가 되어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목이 타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예수께서 그에게 물을 먹이십니다. 벤허는 (특히 죽이도록 지정이 된)죄수였기에 아무도 그에게 물을 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노예로 노를 젓는 항선이 적군의 배에 충돌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배의 항장인 로마 해군 사령관이 전투가 시작되면서 그의 발에 묶인 사슬을 풀어주도록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노예들이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벤허만은 살아남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그가 구출이 됩니다. 그는 이 상황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벤허에 의해서 구출된 사령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벤허의 하나님은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군 전체를 구하셨다."
벤허는 신비한 인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벤허와 같이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보이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달 전기요금 1만2천원 ---하나님이 주신 햇빛은 공짜!
전화요금 3만원---하나님과의 통화(기도)는 수신료 100%인데도 무료!
병원에서 산소마스크 하루 쓰는데 30만원---숨쉬는게 공짜라니...
중동에서는 물 한드럼값이 기름 한드럼 값이라고...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주위에는 감사거리가 무진장 널려있습니다.
감사의 안경을 끼면 감사거리가 아닌것이 없습니다.감사,감사, 감사, 감사!!!!
-최용우-

엄마가 딸에게
예수님 모신 가정을 만들어라
그곳은 예약없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며
네 마음의
방향이 그치는 곳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리 답답해도
신문의 오늘의 운세를
믿지 마라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 표에 영어사기 어려운 품은 양으셔서 드리기 바랍니다.)

주 립 예 배

다 란 이

"Calvary"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Proclaim

찬

14장

다 란 이

*찬 시 곡

65(감사절 2)

Response Reading

*시 앙 고 백

사 도 신 영

교회 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

312장

주 립 학교

Hymn

기도

Prayer

성 경 읽 습

마태복음 5:1-18

인 도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사니라』

Choir

성 가 대 찬 양

나 무 선 가 가 송 가 거

Sermon

교

'무엇이든 감사합니다'

관 소 곡 무 사

Hymn

찬

'310장' (마태복음 22:1-14)

다 란 이

원 금 기도

Offering Pray

Response Song

'이 믿음 다들 온 세라' (1절: 만민을 온 세라, 2절: 다람이)

Benediction

도

Tea Time

가 독 잔 송

안 내 위 원

관 소 곡 무 사

24	정민수	공하나	공영권, 신영화	안원희, 주린차	박영웅, YJYHIDA
17	이원희	임혜자	이재영, 김영차	박영웅, 임혜자	박영민, 박상용
10	김종건	공영권	양정배, 김동수	YJYHIDA, 최기향	박기원, 박기향
3	김교선	양정배	김용림, 이지영	장원종, 송주아	김원수, 민원희

◆1월의 예배위원◆

<p>2002년 교회포아</p> <p>*3주간 예배, 권교찬석 이후에 특별 자격이 주어집니다</p> <p>*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여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p>	<p>주립예배: 첫 12시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부: 주일 첫 12시 청년부: 토 저녁 6시</p>
--	---

1. 교우사
 - *총영권 찬사: "영영권 가문교사", 11월 25일(월)부터 매 월요일 10:30am <장소> Hall
 - *찬양(공하나 찬사 편): 2개월간 예정으로 아학연수자 중국에 머물름다.
 - <특별찬사를 환영합니다>
 - *정성호, 박하림 찬사, 민규, 민이(②), 1구역,) 8832-8289 ☎ 8 Pyrite St. Massey
2.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 *오늘은 한 해동안 우리 학숙에 열매를 주신을 감사드리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 민영의 마음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3. 사자전교주행: 감사주행을 축하하는 사자전교를 예배후 나누겠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준비하
- 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교회학교 졸업: 오늘은 교회학교 각 부서 졸업을 합니다.

<p>【아동부】 장예원, 고동근, 김상복, 김영주, 민지희, 박혜성, 허민영, 신원철, 송새미, 이상중, 이석훈, 이훈은, 한동규, 하규빈,</p>
<p>【영동부】 김영희, 김기원, 김보미, 김보영, 김정현, 김지민, 김태웅, 박용진, 오해리, 이보람, 이현민, 이현민, 최정익,</p>
<p>【교동부】 장동석, 김경민, 박규정, 박용석,</p>

5. Bursary 시흥: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학입학을 위한 Bursary 시흥에 응하는 우리 자녀를
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확선: 김경민, 박규정, 박규원
6. 목양회: 여러교우를께서 목양회를 참 구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369-5077
7. 교회강단(예고): 다음 주일은 김보리, 임미누영, 주석의 교회의 교향찬양주일입니다
- *찬양교과교회 > 임미누영 > 주석의 교회회.
8. "후무교" "제도": 장여하를 목은 배부된 장남과 장녀를 시흥을 시흥하며 감사드립니다
9. 유아세례(예고): 성령에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산> 3세 이하 *시흥하여 주시어 바랍니다
10. 은요세례기도: 영중 적양한 세례기도를 나누는 마음으로 기념하게 합니다.
- *기도하는 자가 가정의 재사정입니다. 나의 기도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

▶작년 사랑▶ 온 는 저녁

-김소영-

바람 가는 이 저녁

월하늘에 피꽃이

무엇하고 제노도

관은 저녁 문년(今年)은...

꽃이라도 꾸민은!

안들면 만년전!

있었던 그 사람은

떨어지고 오시네.

저녁엔, 월하늘은 밝아

첫눈 오면 만나자면 약속이 지켜질까, 풍로
서적 앞에서 서성었던 추억이 모퉁이의 제
편미에 더 이상 누구의 가슴에 안길수 없게
편이 아쉽습니다.

'Love Story'의 'Snow frolic'이 틀러지면
아름답다 못해 서러움으로 아직도 가슴이
뛰는 우리, 가난한 시대를 넘어 왔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